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Labor Supply for Married Women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김 지 경
중앙대학교 인간생활환경학과
부 교수 조 유 현

Dept. of Home Economics, Chung-Ang Univ.

Doctoral course : Kim, Ji-Kyung

Dept. of Human life and Environment, Chung-Ang Univ.

Associate Professor : Cho, You-Hyu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의 해석 |
| II. 이론적 모델 | V. 결론 및 제언 |
| III.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델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of the process for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and the review of previous research, the empirical specification was deduced as a function of husband's income, assets, education and age, the number of children and home ownership.

The data of this research was collected with questionnaire in 1998. The data consisted of the answers by 200 married women. For the measurement of the empirical specification, Logit, Tobit, and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which modifies selection bias were used. Although several different discussions can be made depending on the measurement method, the empirical result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is explained by husband's income, assets, the level of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주제어(Key Words): 노동공급(Labor supply), 기혼여성(Married women)

I. 서론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소득의 증가, 출산율과 주당노동시간의 감소,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수요의 증가현상과 함께 급속하게 증가하여 1970년 36.9%에 불과하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49.5%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서비스 판매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업분포를 보임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에 큰 변화가 없었고 내용면에서도 사무직에 집중되어 있는 미혼여성의 경우와는 뚜렷이 구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가계소득이나 자녀양육 등과 같은 가구 관련변수를 포함하는 노동공급측면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 등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탈퇴가 빈번한 편이다. 그 결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노동수요측면 요인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남성의 노동공급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기혼여성노동의 특수한 노동공급 행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혼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측면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노동공급자로서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이나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공급측면에서 여성노동을 이해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하여 가계소득이나 자녀양육 등과 같은 가구 관련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아 노동공급자로서 더 많은 제약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공급자로서 많은 제약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 노동력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활용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혼여성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요인과 시장참여상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의사결정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기혼여

성의 노동공급 함수를 추정하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혼여성 노동력의 노동공급자로서의 제약요인을 밝힘으로써 기혼여성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인력에 관한 연구와 관련 정책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모델

1. 기혼여성의 취업 의사결정 과정

기혼여성의 취업의사결정과정은 기혼여성이 주어진 시간을 여가, 가사노동, 시장노동의 세 가지 대안에 어떻게 배분하는가로 설명될 수 있다. 기혼여성이 시장재(market goods), 가정재(home goods), 그리고 여가시간(leisure time)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때, 선호를 표시하면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U=u(C, G, L)$$

$$\text{where } G=g(H; X)$$

여기에서 C는 시장재(market goods), G는 가정재(home goods), L은 여가시간(leisure)을 나타내며 G를 생산하기 위한 가계생산함수는 가사노동시간 H와 투입요소 X로서 나타낼 수 있다.

기혼여성은 예산과 시간의 두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가지며, 두 가지 제약조건은 변환과정¹⁾을 통해 하나의 총소득제약조건(fullincome constraint), S로 표시된다.

$$\text{예산제약선: } pC=wM+V$$

$$\text{시간제약선: } H+M+L=T$$

$$S = pC+wH+wL-wT-V$$

1) 수식의 변환과정은 다음과 같다.

$$M=T-H-L, \text{ 변형된 } M \text{을 예산제약에 넣으면,}$$

$$pC=w(T-H-L)+V$$

$$pC+wH+wL-wT-V$$

여기에서 p 는 재화의 가격, C 는 시장재, w 는 임금률, M 은 시장노동시간, V 는 비근로소득, H 는 가사노동시간, L 은 여가시간, T 는 총시간을 각각 나타낸다.

제약조건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Lagrangian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Lg = u[C, g(H; X), L] - \lambda(pC + wH + wL - wT - V)$$

위의 Lagrangian 함수로부터 일차균형조건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partial Lg / \partial C &= u_c \cdot \lambda p = 0 \\ \partial Lg / \partial H &= u_g \cdot g_h \cdot \lambda w = 0 \\ \partial Lg / \partial L &= u_l \cdot \lambda w = 0 \\ \partial Lg / \partial \lambda &= -pC - wH - wL + wT + V = 0 \end{aligned}$$

여기에서 u_c 는 시장재의 한계효용, u_g 는 가정재의 한계효용, g_h 는 가사노동의 한계생산, u_l 은 여가의 한계효용을 각각 나타내며, 균형조건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u_c = w/p = (u_g/u_c)g_h$$

위에서 전개한 기혼여성의 취업의사결정과정은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기 위하여 시장재와 가정재를 완전대체제로 가정²⁾하면 기혼여성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U &= u(C+G, L) \\ \text{where } G &= g(H; X) \\ \text{subject to } &pC + wH + wL - wT - V \end{aligned}$$

이 경우의 Lagrangian 함수와 일차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g &= u[C+g(H; X), L] - \lambda(pC + wH + wL - wT - V) \\ \partial Lg / \partial C &= u_c \cdot \lambda p = 0 \\ \partial Lg / \partial H &= u_g \cdot g_h \cdot \lambda w = 0 \\ \partial Lg / \partial L &= u_l \cdot \lambda w = 0 \\ \partial Lg / \partial \lambda &= -pC - wH - wL + wT + V = 0 \end{aligned}$$

위의 균형조건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u_g = g_h = w/p^3)$$

취업자의 균형상태를 나타내는 위의 식은 재화에 대한 여가의 한계대체율과 가사노동의 한계생산, 그리고 시장에서 제공받는 실질임금률이 같을 때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취업자의 경우 가사노동의 한계생산이 실질임금률을 초과하기 때문에 취업하려하지 않는다. 즉 비취업자는 균형상태에서 요구임금률(reservation wage rate)이 실질임금률보다 크기 때문에 시장노동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균형상태로 표시된다.

$$u/u_g = g_h > w/p$$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취업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노동시간의 가치와 가사노동시간의 가치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시장노동시간의 가치는 시장임금률에 의해 결정되며 가사노동시간의 가치는 비근로소득 및 다른 가계구성원의 소득, 자녀의 수나 막내자녀의 연령, 개인의 선호, 가사노동의 대체여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Blau & Ferber, 1986).

2. 노동공급 함수의 추정

남성노동력의 경우와 달리 경제활동참가율이 50% 안팎인 여성노동력의 경우 노동공급에 관한 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는 것은 선택 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고자 한 대부분의 연구

2) 시장재 C 와 가정재 G 를 완전대체제라고 가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소비자가 집에서 만든 케이크와 제과점에서 산 케이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은 다소 비합리적이지만 모델에서 추론될 수 있는 최종결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여기에서 u_g 는 C 와 G 를 모두 포함하는 재화의 한계효용이다.

〈표 1〉 선택편의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모델들의 함수형태

	Participation Probit (or Logit)	Tobit	SBCR
함수 형태	$1-F(-J_i/\sigma)F(-J_i/\sigma)$ where, $e_i = J_i - [1-b-b(\frac{V_i}{W_i})]$ 오차항이 σ 변량을 가지고 정규분포를 이룸.	$f(e_i/\sigma)F(-J_i/\sigma)$ where, $e_i = H_i - [1-b-b(\frac{V_i}{W_i})]$	$E[H_i H_i > 0]$ $= 1-b-b(\frac{V_i}{W_i})+K_i$ where, $K_i = E[e_{Hi} e_{Hi} \sigma_H > -J_i/\sigma_H]$

들은 이러한 선택편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Heckman, 1974; Gronau, 1974).

일반적으로 선택편의의 문제를 수정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Participation Probit(or Logit), Tobit,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Heckit)의 세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Participation Probit(or Logit) 모델은 여성의 취업 여부에 관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취업한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에 관한 정보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노동시간에 관한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면, 유용한 정보의 손실을 초래하는 다소 비효율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고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을 설명하는데는 제한적이다.

Tobit 모델은 Probit 모델의 확률함수를 수정함으로써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노동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동시에 (simultaneously)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노동시간에 관한 정보를 모두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Probit 모형에 비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기혼여성의 취업선택과 취업한 이후의 시장노동시간의 결정을 같은 변수들로 설명해야 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Heckman에 의해 설정된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Heckit) 모델은 2단계 OLS(Ordinary Least Squares) 기법으로 여성의 취업선택과정과 노동량 결정과정을 별도의 함수로 추정한다. 즉 노동시장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1단계의 Probit 모델에서 얻어진 하나의 추정치인 mills ratio를 두 번째 단계인

회귀분석에서 부가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선택편의의 문제를 수정한 단순회귀분석으로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양승주, 1995). 이러한 Heckman의 분석방법은 Tobit 모형과 비교하여 여성의 취업선택과정과 노동량 결정과정을 각각의 특성에 따른 다른 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과 단순한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표본 선택에 따른 편의를 수정한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비취업여성의 임금률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며, 함수형태에 따라서 판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선택편의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모델들의 확률함수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III.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델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초로 개발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지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와 연령을 고려한 할당표집방법을 통하여 서울 및 경인 지역에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25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1998년 6월부터 1998년 8월까지 배부하였다. 질문지를 회수한 후 불완전한 질문지를 제외하여 200개의 질문지가 본 연구의 최종 실증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2. 변수의 정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분석단위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이고 적용 모델에 따라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및 기혼여성이 시장노동에 참여한 총시간으로 측정될 것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는 부인의 연령, 자녀수, 남편 소득, 자산소득, 부인의 학력, 주택의 자가소유여부가 독립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이 중 부인의 학력과 주택의 자가소유여부는 가변수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부인의 연령은 조사대상자인 기혼여성의 나이를 나타내며 자녀수는 조사대상 가계의 자녀수이다. 남편의 소득은 남편의 근로소득이고, 자산소득은 남편과 부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계의 비근로 소득이다. 부인의 학력은 대재이상의 학력을 가변수화하여 사용하였고, 자가소유여부는 거주 주택이 자기인지 차가인지의 여부에 따라 가변수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3. 실증모델

본 연구의 연구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여성취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임금률이나 교육수준은 여성의 노동공급에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남편의 소득 및 재산 소득, 자녀의 수나 어린 자녀의 존재 등은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의 영향력을 가진다. 임금률이 기

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Mincer, 1960; Kim, 1977) 임금률을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고려될 수 있는 문제들⁴⁾로 인해, 임금률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 및 경험, 연령 등과 같은 대리변수(proxy variable)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교육수준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구와 우리나라의 연구가 다소 상반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의 연구들은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임금이 커지고 이에 따른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며 비금전적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우위성확보라는 심리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은 노동공급에 정(+)의 영향력을 갖는다고 본다(여정성, 199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심경옥, 1984)⁵⁾.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소득의 상승은 기혼여성의

4) 임금률을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비취업여성의 임금률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이다.

5) 심경옥(1984)에서와 같이, 70년대 이후 이루어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은 상당부분 기혼농가여성에게 의해 주도되었으며, 도시화가 확장되고 노동력 유출이 심화되어 가는 농촌의 경제활동이 기혼여성에게 의존하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2>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

변수명	정의	분석단위
부인연령	조사대상 가계의 부인의 나이	세
자녀수	조사대상 가계의 자녀수	명
남편소득	조사대상 가계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	원
자산소득	남편과 부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계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기타 이자와 집세 배당금 등	원
부인 대재이상	조사대상자 가계 부인이 대학재학 이상 학력을 가진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가변수
자가소유여부	거주 주택의 자가소유 여부, 자가소유자 1, 비자가소유자 0	가변수

요구임금수준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노동공급에 부(-)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소득 수준이 높거나 재산소득이 많은 경우, 요구임금수준이 시장임금수준보다 높을 확률이 커지고, 따라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자녀의 수나 어린 자녀의 유무 등과 같은 자녀관련변수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자녀수의 증가는 타아시간을 포함한 가사노동시간을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자녀를 기르는데 요구되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의 논의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 $f(\text{남편소득, 자산보유액, 부인의 연령 및 학력, 자녀수, 주택소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Participation Logit, Tobit,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의 세가지 모델로 추정된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

<표 3>과 <표 4>에 요약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30대와 40대가 비교적 많았으며 표본의 49.0%가 대학 교육을 받은 반면, 중졸이하는 11.0%에 불과한 고학력표본이었다. 조사대상자의 51.5%가 취업상태에 있었으며 월평균가계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계가 표본의 45.5%에 해당하였다. <표 4>에 제시된 조사대상자의 월평균가계소득은 2,957,550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2,470,700원(통계청, 1997)임을 감안할 때 본 표본의 평균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취업주부의 비율을 50%로 할당한 표집이었고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 (N=200)

변인	구분	빈도(%)
부인의 연령	20대	27(13.5)
	30대	70(35.0)
	40대	71(35.5)
	50대 이상	32(16.0)
부인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2(11.0)
	고졸이하	80(40.0)
	대재이상	98(49.0)
취업상태	취업	103(51.5)
	비취업	97(48.5)
가계소득	100만원이하	6(3.0)
	100-200만원미만	34(17.5)
	200-300만원미만	69(34.5)
	300-400만원미만	43(21.5)
	400만원이상	48(24.0)
자녀수	없음	21(10.5)
	한명	39(19.5)
	두명	90(45.0)
	세명이상	8(4.0)
주택소유여부	자	140(70.0)
	가	60(30.0)
	전세 등	

<표 4> 조사대상자의 소득과 취업주부의 노동실태

단위: 소득(원), 근로시간(시간), 취업연수(년)

변수명	평균(Mean)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총소득 (N=200)	2,957,550	1,458,253
남편소득 (N=195)	2,081,333	976,308
부인의 소득 (N=103)	1,313,942	839,395
자산소득 (N=45)	1,077,778	920,199
부인의 주당근로시간 (N=103)	44.77	14.03
부인의 취업연수 (N=103)	7.73	6.95

표집대상이 서울 및 경인 지역이었으며 노인가구의 비율이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자 중 한명 또는 두명의 자녀를 가진 가

구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표본의 7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서울지역의 주택소유율이 50%에 미치지 못함을 감안할 때 본 표본은 높은 주택소유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울러 남편의 월평균소득은 2,081,333원인 반면 부인의 월평균소득은 1,313,942원이었다. 자산소득이 있는 가구는 45가구로 전체 표본의 약 22.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월평균자산소득은 1,077,778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주부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44.77시간이었으며, 평균취업년수는 7.73년이었다.

2.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요인

〈표 5〉의 Logit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남편소득과 자산소득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남편의 소득이나 자산소득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남편의 소득이나 자산 소득이 많을 경우 부인의 요구임금이 높아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관련연구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나 임금률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인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기혼여성의 취업확률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본 연구가 표본의 수가 적고 표본이 비확률표집법인 할당표집으로 선정되었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6〉의 Tobit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Logit 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나 Logit분석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던 기혼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을 반영한 가변수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 이후 우리나라 기혼여성 노동력의 변화 추이를 통해 파악된 교육수준에 관한 결과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앞으로 기혼여성인력의 고학력화를 통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가 가능하리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7〉은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의 결과이다. 이 모델의 첫 번째 단계인 Probit 분석의 결과는 〈표 5〉에서 제시된 Logit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편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두번째 단계인 회귀분석에서는 취업년수만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시간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소득수준이나 자산소득과 같은 변수들로 유의미하게 설명될 수 있는 반면, 일단취업이 이루어진 다음의 노동시간에 대한 의사결정은 취업년수와 자가소유여부에 의해서 유의미하게 설명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취업년수가 노동시간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은 노동시간의 결정에 있어서 경험을 반영한 임금률의 효과가

〈표 5〉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Logit Analysis)

설 명 변수	B 값	S.E	Sig.
연속변수			
부인연령	-0.0029	0.0271	0.9149
자녀수	-0.2397	0.0209	0.2518
남편소득	-0.0049	0.0018	0.0062
자산소득	-0.0160	0.0053	0.0026
가변수(dummy)			
부인대재이상	-0.2217	0.1793	0.2162
자가소유	-0.0588	0.1909	0.7582
상수(constant)	1.8775	0.8967	0.0363

Likelihood ratio: 233.10 Sig. = 0.0041

〈표 6〉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Tobit Analysis)

설 명 변수	B 값	S.E	Sig.
연속변수			
부인연령	-0.0078	0.5466	0.9886
자녀수	-3.9012	4.1871	0.3515
남편소득	-0.0996	0.0348	0.0042
자산소득	-0.3360	0.1008	0.0009
가변수(dummy)			
부인대재이상	3.2988	7.2021	0.0980
자가소유	-0.6619	7.4718	0.9294
상수(constant)	39.3061	17.5356	0.0196
Scale	39.3061	3.1048	

Likelihood ratio: -590.0791

〈표 7〉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1단계: Probit Analysis		(N=200)	
설 명 변 수	B 값	S.E	Sig.
연속변수			
부인연령	-0.0029	0.0162	0.8584
자녀수	-0.1525	0.1278	0.2328
남편소득	-0.0028	0.0010	0.0072
자산소득	-0.0091	0.0030	0.0020
가변수(dummy)			
부인대제이상	0.2522	0.2172	0.2455
자가소유	0.0743	0.2318	0.7485
상수(constant)	0.9880	0.5261	0.0604

Log Likelihood ratio: -120.8997

2단계: Regression Analysis		(N=103)	
설 명 변 수	B 값	S.E	Sig.
연속변수			
부인연령	-0.2870	0.2291	0.2120
자녀수	0.9694	1.9498	0.6196
가계소득	-0.0186	0.0257	0.4702
취업년수	2.3835	0.2079	0.0001
가변수(dummy)			
부인대제이상	-4.5023	3.3740	0.1836
자가소유	-5.8218	3.1970	0.0702
Lambda	22.3094	18.3832	0.2264
상수(constant)	22.4737	18.9455	0.2370

R²: 0.4857 Sig.=0.0001

부분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취업년수의 증가에 따른 임금율의 상승에 수반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자녀의 수나 가계소득과 같은 가계관련변수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시간의 선택이 내생적이기 보다는 외생적인 측면이 강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이러한 노동시장의 비유연성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한편 자가인 기혼여성의 경우 차가인 기혼여성에 비해 노동공급시간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wealth)의 대리변수로서 주택소유에 따른 소득효

과가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본 표본에서는 Lamda의 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노동력에 관한 연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Becker의 시간배분이론에 근거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모델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공급 모델 중 Tobit 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기혼여성의 고학력화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서구의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모델과 같이 고학력화를 통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정보화·세계화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단순·비숙련 직종의 인력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고학력·전문직종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리라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도 고학력 기혼여성인력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농촌여성인력에 의해 주도된 과거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형태도 첨단농가기술의 보급을 통한 농촌여성인력의 수요감소로 점차 다양한 전문기술분야에서의 비농가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기혼여성노동력은 정보통신지식과 같은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인력일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여성교육의 내용이나 체계가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편되는 한편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혼여성인력의 전생애(life-span)에 걸친 재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택편위의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Logit, Tobit,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의 세 가지 모델로 설명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모델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들은 대체로 유사하였다.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소득의 상승이 기혼여성의 요구임금

수준을 상승시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높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소득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되었다.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모델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노동공급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비해 노동공급량에 대한 의사결정에 임금률의 효과가 더 잘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이 내생적인 측면보다 외생적인 측면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제약조건은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여성 중 50% 이상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경제기획원, 1990),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취업시에 발생하는 역할과중과 이중노동부담을 경감시켜 기혼여성인력의 원활한 노동공급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기혼여성 노동력에 대한 근로조건 유연성부여와 탁아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선결과제들이 해결된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에서 결혼과 출산에 기인한 기혼여성인력의 경력단절현상은 완화될 것이며 이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는 기혼여성잠재인력을 줄임으로써 기혼여성의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한계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는 다소의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형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사회에서 기혼여성 노동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용방안과 선결과제들을 논의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기혼여성인력에 관한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기혼여성 노동력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이론

적 논의나 접근방법이 자료의 보완으로 후속연구에서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심경옥(1984).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분석: 한국의 실증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2(2), 72-100.
- 어수봉(1991).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여정성(1994).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2(3), 71-83.
- 양승주(1994).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행태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선희(1994).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실증분석: 노동공급함수의 추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신의 4인(1996). 가계경제학. 학지사.
- 이철순(1990). 한국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시간 배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영(1993). 한국 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지역 노동시장론적 접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유현(1997). 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6(11), 209-218.
- 정무(제2)장관실(1995). 한국여성발전 50년.
- 통계청(1994). 지난 30년간 고용시장의 변화.
- 통계청(1995). (통계로본)한국의 발전취.
- 통계청(1995).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1996). 지표로보는 통계.
- 통계청(1997).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1997). 도시가계연보.
-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 한국여성개발원(1994). 1994 여성통계연보.
- 한국여성개발원(1995). 고학력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
- 한국여성개발원(1996). 1996 여성통계연보.
-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7 여성통계연보.
-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 time, *Economic Journal*, 75(299), 493-517.
- Blau, F. D., & Ferber, M. A. (1986).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New Jersey: Prentice-Hall.
- Bowen, W. G., & Finegan, T. A. (1969). *The economics of labor particip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yant, W. K.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nau, R. (1974). Wage comparisons-selectivity bia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1119-1143.
- Heckman, J. J. (1974). Shadow prices, market wages and labor supply. *Econometrica*, 42, 679-694.
- Heckman, J.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153-161.
- Killingsworth, M. R. (1983). *Labor suppl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Sookon. (1997). Cross-substitu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as one of the factors determining married women's labor supply.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2(1), 131-145.
- Maddala, G. S. (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ncer, J. (1962).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lsen, R. J. (1980). A least squares correction for selectivity bias. *Econometrica*, 48, 1815-1820.
- Smith, J. (1980). *Female labor supply: Theory and estim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